

여수 지역축제·행사 실시간 생중계 호응

전국 지자체 최초 HD인터넷 생방송

여수시가 지역의 축제와 중요 행사를 실시간 생중계에 호응을 얻고 있다. 대부분 국내 지자체가 시정 홍보 영상을 녹화해 제작하는 것과는 달리, 여수시는 생중계를 통해 더욱 생생한 현장을 시민에게 전달하고 있다.



여수시가 지역 축제와 행사를 실시간 생중계를 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최근 한마음축제가 열린 여수동 행사장에서 시민들에게 이 축제를 생중계 해 주고 있다. <여수시 제공>

전광판 영상홍보차량 등 모바일 방송시스템 가동

시 공보실 영상팀 맹활약 간부회의 등 시정도 중계 생생한 현장 시민에 전달

여수시는 6일 "전광판 영상홍보차량을 활용해 축제 등 주요 행사 등을 현장 생중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다.

또 모바일 생중계를 위해 여수시는 시청 상황실과 회의실에 HD(디지털방송 영상기술) 원격 시스템 카메라 등 28종의 장비를 설치했다.

모바일 미디어 방송장비도 도입해 휴대기기만 있으면 언제든 인터넷 생중계와 녹화방송 시청까지 가능한 HD 방송 시스템을 완비했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상 간부회의까지 실시간으로 일일이 생중계하기는 쉽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알권리를 우선시한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뤄졌다.

이렇게 시작된 생중계는 간부회의는 물론, 매일 정례조회와 주간업무보고, 각종 간담회와 기자회견 등 시 행정 전반에 걸쳐 빠짐없이 시행되고 있다.

또 공무원 교육과 시민교양 강좌 등 각종 특강도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생중계된다.

여수시 공무원들도 시간·공간 제약 없이 주요 현안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성도 높아졌다. 실제 여수시의 HD 인터넷 생중계는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일 뿐만 아니라 소통과 협력을 최우선 핵심가치로 정한 정부의 3.0 정책과도 일치한다.



영상팀 서기령·서정수·최동진 주무관(왼쪽부터).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다. 지난해 시범 생중계를 마친 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 중인 '전광판 현장 생중계'는 시정·문수·여서·광림동 주민 한마음축제와 청소년축제·시립합창단·국악단 정기 연주회 등 주요 문화 행사도 생중계됐다. 특히 최근 2달 사이 잇따라 열린 동 단위 축제에서 시민들의 호응은 더욱 뜨거웠다.

이처럼 여수시가 수준 높은 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전문성을 갖

춘 홍보영상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해 전국 최초 HD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 생중계를 실시하고 있는 여수시 공보실 영상팀은 전국 지자체 홍보분야에서는 그야말로 독보적이다. 영상팀에는 서정수 주무관(50), 최동진 주무관(46), 서기령 주무관(43)이 포진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서 주무관은 "여수시민이 직접 시정 성과를 확인하고 원하는 정보를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 마련과 서비스 구축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꿈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홍보 영상 분야를 전담하고 있는 이들은 지난해 8월 시와 관련된 각종 행사 등을 IPTV, 스마트폰, PC,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생중계하는 '모바일 방송시스템'을 자체기술력으로 본격 가동했다.

특히 이 분야를 20년 넘게 전담해 온 마형 서 주무관은 지난 2000년부터 DB(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나서 여수시의 주요 기록들을 검색만으로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했다.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DB 구축은 전국 어느 지자체도 엄두를 못 내는 일이다. 그만큼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들의 활약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국이 결정되던 지난 2007년 빛을 냈다. 인터넷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 여수시 전광판 차량으로 프랑스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생중계했다. 당시만 해도 화상 시스템이 제대로 발달 되지 않은 터라 획기적인 일이었다.

여수시 최양수 공보담당관은 "전문성을 갖춘 영상팀과 첨단 장비를 도입해 여수시가 홍보 영상 분야 우수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광양 부생가스 해저터널 건설 가시화

길이 4km·터널내경 5m

2000억 투입 2019년 완공

여수·광양간 부생(副生)가스 해저터널 건설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EIP(생태산업단지)사업단은 6일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여수 국가산업단지와 광양 산업단지 사이에 길이 4km·터널내경 5m 크기의 해저터널을 건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해저터널이 완공되면 광양 산단내 포스코 그린가스텍 등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가 이 터널을 통해 여수 산단으로 공급되고, 여수 산단에서 생산되는 석유화학 원료는 광양 산단으로 공급된다.

또 양 산단에서 발생하는 수소·일산화탄소·산소·질소·합성가스(Syn-gas) 등을 이 터널로 운송할 수 있게 된다.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 설계용역도 완료돼(공사비 2000억원, 공사기간 56개월) 정부에 이미 제출됐다.

전남 EIP사업단은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SPC 참여사를 이달부터 모집, 12월 설립을 마칠 계획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간담회도 열렸다. 지난달 2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 광양지사에서 열린 간담회는 전남도와 여수시·광양시 등 해당 지자체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관련 기관, 사업추진을 위한 7개 협약사(POSCO·GS칼텍스·휴켄스·한화케미칼·대상산업가스·덕양, 에어리퀴드코리아)와 포스코, 그린가스텍 등 관련 기업 9곳이 참석했다.

"여수~광양 해저터널사업 추진 현황 및 사업 활용방안"이란 주제로 열린 간담회는 부생가스 교환망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사항 보고와 육상 배관망 설치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전남 EIP 사업 기획과제로 출발, 5년만에 가시화됐으며 현재 정부 국책사업과 전남도 정책사업으로 지정된 상태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여수 새고막 지리적표시 수산물 20호 등록

여수 여자만 갯벌에서 생산되는 새고막이 지리적표시 수산물 제20호로 등록됐다.

6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자만 새고막은 지역내 235 어가에서 연간 2만2000t(전국 생산량의 73%)이 생산돼 650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여수지역 어업인들은 지난 2011년 울촌면 상봉리 일원에 '여수 새고막 주식회사'를 설립해 새고막 생산과 가공, 유통 등 고부가가치 창출에 힘쓰고 있다.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을 계기로 여자만 새고막 브랜드의 안전성과 품질 인정

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2012년 미국 FDA 가막만 지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여수 굴'이 수산물 지리적 표시 제12호로 등록된 바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지리적 표시 등록에 이어 현재 여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설정 작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여자만 새고막의 해외 수출길이 활짝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깨끗한 여수 만들기' 공직 청렴 생활화 총력

여수시가 신뢰행정을 위한 공직 청렴도 향상을 나선다.

여수시는 6일 "민선 6기 출범 후 '부패 없는 깨끗한 여수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새로운 청렴 실천 생활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시 전 부서 출입문에 직원들이 출입시 마다 문구를 확인할 수 있는 청렴 패널이 부착됐다.

청렴패널은 여수시 모든 부서를 포함한 각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출입문에도 부착돼 '청렴한(韓) 세상'로고와 함께 각 부서에서 선정한 청렴서약 문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청렴 캠페

는 직원들이 직접 선정한 청렴 문구 등을 표면에 새겨 매 순간 청렴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고안됐다.

여수시는 또 수의계약 순번제 준수, 전 직원 청렴도 자기진단 및 청렴 교육 이수 등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이다. 지난 8월부터는 '청백-e 통합 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회계 비리 제발 방지와 부정·부패 근절에 나서고 있다.

주철현 시장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기본은 청렴이다"며 "전 직원 청렴실천 생활화로 투명하고 비리 없는 깨끗한 여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시내지국

광천	366-8375
광남	222-9440
남부	652-0175
동광	264-2012
동명	222-9054
동부	225-6001
문흥	267-4748
백운	673-4698
봉신	675-5530
북광주	525-3761
상무	372-2352
서광주	369-0583
송하	676-8605
신안	512-1732
양산	571-7658
양치	266-7601
용봉	522-7752
우산	512-8116
운천	371-9818
원곡	961-2339
중양	222-1896
중흥	224-8604
진월	673-1600
첨단	973-2900
충장	224-8212
치평	376-6511
풍암	682-8112
하남	959-1500
화정	375-9862

지방지사

광산	062)944-0444	남원시	063)633-9911
군산시	063)467-2500	순창군	063)653-0444
정읍시	063)531-5544	서울보급소	02)313-5962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2** 광주일보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대(代)를 이어 읽는 신문

광고문의_062 227-9600 | 신문구독_062 220-0551 | 예향구독_062 220-0550